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상웰라이프와 라이프케어 협력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대상웰라이프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대상웰라이프 본사에서 통합 라이프케어 영업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객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보험 보장 수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웰라이프의 헬스케어·건강데이터 역량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보장분석·FP 전문상담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현대해상, ‘소비자보호헌장’ 새롭게 제정

현대해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높아진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 중심의 업무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지난 1996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포한 ‘고객만족헌장’의 정신을 계승하고,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헌장을 마련했다. /현대해상



중기중앙회·세무사회,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지원 및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를 적극 홍보하는 등 고객에게 노란우산 가입을 보다 편리하게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파마리서치, 국가대표 선수단 건강관리 지원

파마리서치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단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18일 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달 품목은 전문의약품부터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총 10종이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은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인사 ◆공정거래위원회◇과장급 전보 △기업거래정책과장 송명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장급 전보△전략기술육성과장 김태규
◆기획예산처◇신규 임용 △장관 정책보좌관 김병조

부음 ▲박종숙씨 별세, 김현겸(팬스타그룹 회장)씨 장모상, 강병수 PSXB동산 대표이사·순명·은명·진명씨 모친상, 서지연씨 시모상=19일 오전,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20일 15호실로 변경), 발인 21일 오전 9시30분, 장지 광주공원묘원. 010-5462-6811.

예탁결제원, 연 18억 지역사회·혁신기업에 투입

2023년부터 연평균 17.8억 출연
부산 대학생 직무교육·장학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오피스텔 15채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마다 약 18억 원을 사회공헌과 혁신기업 지원에 투입하며 지역 청년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 등 장기·지역밀착형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사회공헌 및 혁신기업 지원 출연액은 연평균 17억8300만원이다. 2023년 23억400만원, 2024년 15억7200만원, 지난해 17억4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15억4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대학생에게는 금융·증권 직무교육과 장학금을 지원한다. ‘KSD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증권 오픈캠퍼스’는 2019년 5개 대학 35명으로 시작해 올해 12개 대학 60명이 참여했다. 부산지역 대학 IT·상경계열 학생에게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19억8000만원의 장학

삼성·LG, 경남 수해지역 가전 수리

거제·통영서 침수 가전 특별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가전제품 점검과 수리 등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현장에 특별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는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통영 일대에서 침수 가전제품 점검과 수리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부터 경남 거제시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

팀’을 파견했다. 둔덕면사무소 인근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세척과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침수 피해 주민이 이동형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접수하면 엔지니어가 가정을 방문해 제품을 점검한다.

LG전자도 지난 18일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특별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수해 복구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과 제조사에 관계없이 침수 가전 제품을 무상 점검하고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BNK금융, 거제 수해복구 ‘구슬땀’

임직원 100여명 장평·고현동 찾아

BNK금융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BNK금융그룹은 19일 그룹 임직원 100여 명이 거제시 장평동과 고현동 일대를 찾아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택 등의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매장과 주택 등을 찾아 토사와 폐기물을 정리했으



BNK금융그룹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BNK금융

며, 주변 환경을 정비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풍피두센터 한화, 야외정원 첫 프로젝트

김윤신·신미경·오묘초 작가 참여

풍피두센터 한화가 미술관 내부에 머물던 예술 경험을 야외 정원으로 확장한다. 세계적인 조경가 피트 아우돌프가 설계한 정원에서 자연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풍피두센터 한화는 오는 9월 미술관 야외 공간인 ‘63아우돌프가든’에서 첫 정원 프로젝트 ‘채겨지는 것들(Imprinting Time)’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한국 여성 작가 김윤

신과 신미경, 오묘초가 참여한다. 작품은 식물과 계절, 한강변의 바람과 햇빛, 빗물 등 외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김윤신은 나무 형태를 금속으로 떠낸 채색 조각으로 자연의 물성과 신체 움직임의 표현한다. 신미경은 비누로 만든 천사 조각이 점차 닳고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 시간과 소멸을 탐구하며 오묘초는 식물과 신체가 결합한 듯한 조각으로 자연과 과학,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

/원관희 기자 wkh@

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생활장학금 장학생 460명을 선발하고 27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주거와 경제교육을 제공한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오피스텔 15채를 지원하고 종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예탁결제원을 포함한 부산 소재 9개 기관은 2018년부터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에 총 98억5000만원을 출연했다. 예탁결제원의 누적 출연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올해도 1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일자리오피스사업과 사회적기업에는 증권대행과 발행등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등 7개 서비스의 수수료를 감면한

다. 2018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감면액은 약 28억5500만원이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2021년 출범한 ‘KSD 혁신창업-스케일업 지원 펀드’는 200억 원 규모의 K-크라우드펀드와 50억원 규모의 지역 벤처투자펀드로 구성됐다. 크라우드펀딩 기업과 부·울·경 소재 혁신창업기업 등에 초기·후속 투자금을 공급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밖에도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브랜드페스타 후원, 장애인 고용시설 제품 구매,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이어가며 지역인재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순당, 추석 앞두고 ‘차례주 빚기 교실’

내달 5일 화성 ‘박봉담’서 진행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술을 직접 빚어보는 ‘2026 추석 차례주 빚기 교실 인박봉담’을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술북 합문화공간 ‘박봉담’에서 열린다.

이번 차례주 빚기 교실에서는 햅쌀로 무리떡(백설기)을 만든 뒤 누룩을 섞어 빚는 전통 차례주인 ‘신도주(新稻酒)’ 제조법을 배운다. 참가자들은 인

당 1.5리터 이상의 차례주를 직접 빚게 되며, 이를 집에 가져가 약 2주간 발효시키면 추석 차례상에 올릴 근사한 차례주가 완성된다.

단순 빚기 체험 외에 우리술에 대한 다채로운 교육과 비교 시음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순당의 대표 차례주 ‘예담’을 시음하며 우리 고구려청주와 일본식 청주의 차이점을 직접 비교해 보는 시간이 포함된다. 참가 인원은 2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명절 차례주 문화 보급을 위해 정상이보다 할인된 2만 원(대학생 1만 원)으로 책정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식진흥원, 28일 ‘한식콘서트’ 개최

거창한국수 김현규 소장 28일 강연

‘8월 한식콘서트’가 이달 28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이음에서 개최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식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매일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19일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경남 거창의 거창한국수 김현규 연구소장과 김상희 대표가 8월 한식콘서트 강연자로 나선다.

김현규 연구소장은 오랜 시간 국수를 만들며 재료와 반죽, 제면과 건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국수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온 명인이다.

이번 한식콘서트에선 김현규 연구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 /한식진흥원

소장이 오랜 시간 국수를 만들며 얻은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국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수 한 그릇의 맛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방문객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김연재 기자 kys@

카카오벤처스, 1인 창업가 한데 모은다

내달 템프서울 개관해 개발 지원

카카오벤처스가 1인 창업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창업자 공동체를 만든다. 카카오벤처스는 창업자를 위한 물입 공동체 공간 ‘템프서울(tmp Seoul)’을 오는 9월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템프서울은 ‘솔로파운더’가 일정기간 한 공간에 모여 각자의 제품 개발에

몰두하는 공간이다. 숙박을 전제로 한 합숙형 공간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해진 기간 함께 일하며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간명은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임시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 ‘/tmp’에서 따왔다. 창업자들이 일정기간 밀도 높게 제품을 만들고 이후 각자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임시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았다. /최빛나 기자 vitna@